

한글장편소설 남성인물의 ‘공감’에 대하여

- 『명행정의록』의 ‘위천유’를 주목하며 -

고 은 임*

차 례

- | | |
|---------------------|----------------------------|
| 1. 서론 | 3. 공감하는 남성, 『명행정의록』의 ‘위천유’ |
| 2. 남성인물과 ‘공감’의 문제 | 4. 결론 : 공감하는 남성인물 등장
의의 |
| 1) 감정을 소외시키는 군자형 인물 | |
| 2) 자기중심적인 호방형 인물 | |

국문초록

한글장편소설은 상층 여성의 고충이 잘 드러나 있는 장르이다. 이때 여성들의 고충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에 의해 공감되고 위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내적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남성인물이 있어 흥미롭다.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남성 중심인물의 공감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자형 인물과 호방형 인물의 유형적 특징, 특히 감성의 측면에 집중하여 그들이 타인의 감성에 대해 어떤 인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얼마나 공감하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명행

* 서울시립대 강사.

정의록』의 등장인물 ‘위천유’가 여성인물에게 공감하는 상황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군자형 인물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기준, 감정 절제의 기준이 높아, 타인의 부적절한 욕망과 감정에 대해서는 부정(否定)하고 혐오하여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호방형 인물은 감정을 표출하고 추구하는 데 적극적이지만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자기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특히 갈등 대상이 되는 여성인물에게 질곡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군자형, 호방형 인물 모두 자신과 마주하는 타자의 감성 작용에 대체로 무심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명행정의록』의 군자형 인물 위천유는 공감능력,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이 뛰어나 여성인물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는 원치 않은 혼인 상황에서 장인에 대한 불만을 아내에게 옮기는 일 없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괴로워하는 아내 문창군주를 위로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외상 [trauma]에 시달리다 마비 증세를 겪는 제수(弟嫂) 양현강의 내면을 꼭진히 이해하며 그를 치유한다. 여성의 고통이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이해되고 공감된 지점은 특기할 만한데, 이처럼 여성/약자에게 공감하는 남성인물의 등장은,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공감 주체와 공감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

주제어 : 한글장편소설, 명행정의록, 위천유, 군자형 인물, 호방형 인물, 공감

1. 서론

고전소설의 인물 성격은 서술자에 의해 직접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¹⁾

물론 작품이 장편화되고 '장면전개'가 확대되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인물의 행위, 대화, 심리 등이 상세하게 그려지면서, 서술자의 단정적 서술 시각과 괴리된 인물 형상이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기도 한다.²⁾ 그러나 서술자의 시각은 작품 내에서 강한 권위를 갖고 인물을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작품 내 인물의 역할과 위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서술시각은 등장인물을 선인, 악인과 같이 일정정도 유형화하고, 그 유형화된 인물 형상이 한글장편소설에서 반복, 변주되어 왔다.

때문에 한글장편소설의 인물들은 스토리에서의 행위와 역할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논의되어온 경향이 있다. 특히 한글장편의 중심인물 가운데 남성인물은 대개 군자형, 호방형으로 대별된다고 여겨진다.³⁾ 군자형 인물은 인격 수양과 예법을 중시하고 침음단중(沈吟端重)한 태도를 지녀 작품 내에서 서술자나 인물들에 의해 '군자' 혹은 '성인'으로 평가된다. 호방형 인물은 성품이 호방하며 고집이 세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도 거침없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대개의 중심가문 남성인

1) 직접 한정이란 작중인물의 특성을 권위 있는 서술자가 직접 지목하는 방식이다. 한편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런 정의를 간접적 인물 구성과 충돌하고 혼란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 리몬 케년의 『소설의 현대 시학』(최상규 역, 예림기획, 2003, 110-111쪽.) 참고.

2) 장면전개에 대해서는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태학사, 1998, 81-123쪽.) 참고.

3) 인물 유형에 대한 명칭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였다. 군자형은 성인형, 성인군자형 등으로 지칭되며, 호방형은 영웅형, 호걸형, 영웅호걸형 등으로 지칭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칭하는 의미의 범주가 넓은 '군자형'과 '호방형'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고.

정병설, 앞의 책;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장시광, 「'호방' 관련 단어와 대하소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의 개념」, 『은지논총』 35, 은지학회, 2013; 조혜란,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君子型)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물들은 이 두 가지 인물 유형에 귀속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의 전형성, 유형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 개개의 형상에 대해 보다 촘촘한 그물을 갖다 대어 인물의 고유한 특징을 선별하고, 그러한 인물 형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일은 고전소설을 보다 흥미롭게 향유하는 방법일 것이다. 당대 독자들 역시 텍스트에 드러난 인물의 전형성을 실제 인간 전형, 즉 당대 공통감각의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인물 별로 다르게 드러나는 특징적 면모를 간취하고 나름의 미적 쾌감을 느끼며 소설을 향유했을 것이다.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남성 중심인물의 공감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자형 인물과 호방형 인물의 유형적 특징, 특히 감성의 측면에 집중하여 그들이 타인의 감성에 대해 어떤 인식과 이해를 지니고 있으며 얼마나 공감하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명행정의록』의 등장인물 ‘위천유’가 여성 인물들에게 공감하는 상황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위천유는 한글장편 인물 유형 가운데 소위 ‘군자형’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매우 탁월한 공감력을 지니고 있다.⁴⁾ 한글장편 남성인물의 공감력에 대해 인물 유형별 특

4) 『명행정의록』은 『보은기우록』의 연작으로, 19세기 문인 홍희복(洪羲福, 1794-1859)과 남윤원(南允元)이 『명행정의록』의 향유기록을 남긴 바 있어 19세기 향유된 작품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항은 정규복의 「제일기언에 대하여」(『중국학논총』 1,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84년, 79쪽), 남윤원의 「옥수기」 발문(『필사본고전소설전집』 권11,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2, 745-747쪽.) 참고.

『명행정의록』은 작품론을 비롯하여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고, 다른 작품들과 함께 주제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용식, 「〈명행정의록〉의 세대별 인물 기능과 갈등의 의미」, 『국제어문』 16, 국제어문학회, 1995; 서정민, 「조선조 한글대하소설의 위상 제고 방식 연구-〈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서술 태도 분화와 소설 서사의 위상 제고」,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정을 논의하고 그 가운데 부각되는 위천유의 공감능력에 대해 살펴 그 특질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남성인물과 '공감'의 문제

한글장편소설에는 상층 가문 여성들이 겪는 번뇌와 고충이 잘 드러나 있다. 혼인 전후에 겪는 여러 가지 혼사장애, 즉 다처제에서 발생하는 적국(敵國)과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시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 가운데, 약자이면서도 동시에 여도(女道)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여성인물들은 운신의 폭이 매우 적다. 따라서 그들은 갈등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은 대개 같은 여성들이다. 특히 남편의 소대(疏待), 혹은 폭압적 언행 등에서 비롯되는 고난은 비슷한 일을 겪은 여성에 의해 공감되며 보살펴진다.

이러하면 『소현성록』의 문제적 인물 화수은은 질투의 감정을 거칠게 드러내며 갈등을 일으켜 끊임없이 교정의 대상이 되지만, 다처제 하에 발생하는 그의 질투, 불안, 슬픔의 감정 자체는 여성인물들에게 이해되

2006; 박순임, 「〈명행정의록〉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 2018; 한예민, 「〈명행정의록〉의 전고 활용양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8;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9; 채윤미, 「한글장편소설 속 선계(仙界) 형상화의 일고찰-〈천수석〉과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채윤미, 「〈명행정의록〉의 구현용 형상의 특질과 의미」, 『동서인문학』 58, 계명대 인문과학연구, 2020.

고 연민되곤 하였다. 『유씨삼대록』에서 역시 남편 유현의 폭력에 시달린 양벽주를 애써 찾아와 염려하고 위로한 것은 시누이들이었다. 양벽주를 궁중에 가뒤편하겠으니 보내라 명하는 장황후의 밀서에, 그가 심한 고충을 겪을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가문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며느리를 사지에 보내기로 결정한 유부 남성들 앞에서, 유일하게 그 결정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양벽주 입장에 선 것도 시누이 유설영이었다. 이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에서 가문의 여성들이 모여 공연히 고통받는 여성을 위로하고 그에게 패악을 부린 아들, 남자형제들을 비판하거나 희롱하는 장면은 익숙하다.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질곡이 이러한 장에서 잠시나마 이완되고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이 겪는 내적 고통,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인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공감(共感, empathy)이란 타인의 정서에 대해 함께 나누고 반응하는 과정이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며, 타인이 느끼고 있거나 또는 느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유사하게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민(憐愍, sympathy)의 과정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연민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정서 반응이면서, 그 정서 상태와 동일하지는 않고 대신 타인에 대한 슬픔 또는 우려로 구성된다.⁵⁾ 즉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 인지하거나 그것에 대해 슬픔, 걱정을 느끼는 정서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 소설에서 공감의 영역은 남성보다 여성들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성인물은 타인의 고통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여성들에게 질곡을 씌우고 고통을 부여하는 주체로만 존재

5) ‘공감’(共感, empathy)은 학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는 Nancy Eisenberg와 동료들이 제시한 개념이 정리된 내용을 인용한다. Jean Decety 편저, 현지원·김양태 공역, 『공감-기초에서 임상까지』, 학지사, 2018, 212쪽.

하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타인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 남성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감정을 소외시키는 군자형 인물

한글장편소설의 인물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소현성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은 『구운몽』, 『창선감의록』과 함께 17세기에 등장한 장편소설로, 형식적, 주제적 측면에서 이후 소설사의 주도권을 잡아 18세기 전성기를 맞는 일군의 장편 ‘가문소설’의 효시가 된 작품으로 평가된다.⁶⁾ 인물 형상에 있어서도 『소현성록』에서 마련된 등장인물의 정형성이 이후 한글장편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것이 여러 작품에서 반복, 변주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소현성록』의 중심인물 소현성은 ‘군자형’ 인물의 전형으로 일컬어진다.⁸⁾ 조혜란은 소현성이 유교적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그 신념체계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 서사를 지닌 인물이라 평했다.⁹⁾ 이 평가처럼 그는 유교적 가치, 특히 ‘효’(孝)를 절대적 가치 이념으로 삼고 평생을 모친 양부인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산 인물이다. 유복자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인식(人事) 숙성(夙成)하고 성회(誠孝) 출턴(出天)”하였고,¹⁰⁾ 14세 과거급제 후에는 그야말로 입신양명의 길을 걸어 동

6)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313-368쪽.

7) 특히 『소현성록』의 주동인물들은 동시대 장편소설들과 달리 이(理)에 합치되지 않은 감정, 사정(私情)을 지닌 존재들로 그들은 문체적 욕망을 품고 문체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데, 이러한 인물 형상이 이후 한글장편소설에서 반복, 변주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은임(2019), 앞의 논문(192-198쪽.) 참고.

8) 정선희(2005), 앞의 논문; 조혜란(2016), 앞의 논문.

9) 조혜란, 위의 논문, 157쪽.

10) “공직(公子) 헛갓 총명이 괴이(奇異)할 분 아니라 인식(人事) 숙성(夙成)하고 성회(誠孝) 출턴(出天)하야, 동즈(童子)로 더브러 서실(書室)의서 서계조명(西鷄初鳴)이 관세(盥洗)하고 부인 숙소 창외(窓外)에서 소리들 느죽이 문안(問安)을 못 좁고 회답(回答)을 기다려 지비(再拜)하고 물러난 후, 명도(明朝)의 신성(晨省) 홀식 관띠(冠帶)를 정히 하고 늦빛출 온화히 하며 기운을 평안히 하야 모친 상

량지신(棟樑之臣)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소부의 가장으로서 금욕적이며 엄정한 태도로 제가(齊家)한다. 특히 그는 모친의 뜻에 따라 주색(酒色)을 철저히 멀리한 인물로, 기생이 참여한 술자리를 삼가며 혼인관계 이외의 여성에게는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그가 여색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은 작품 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데, 출정 시 불우한 처지의 여성들, 윤씨나 가씨를 만나 구원의 손길을 뻗을 때도 서둘러 의남매를 맺거나, 다른 남성에게 중매하는 식으로 이성적 관심을 사전에 차단해버린다. 세 명의 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엄정함을 내세우며 호오(好惡)의 표출을 삼가는데, 한 달 중 열흘은 서당, 8일은 원위(元位) 화씨의 처소, 그리고 나머지 6일은 각각 석씨, 여씨의 처소에서 보내며 기계적인 공정함을 고수한다. 자녀들에게 역시 단엄한 아버지임은 말할 것도 없다.

소현성이 이상적 군자형 인물로 평가되어온 것은 감정을 잘 절제한다는 그의 성격적 특징,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갖춰야한다는 그의 지향과 크게 관련된다.¹¹⁾ 유교적 인물의 이상향에 있어 ‘감정의 적절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용』은 첫 장에서부터 ‘정’(情)의 문제를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절지화’(中節之和)의 적절한 감정 상태가 ‘도덕적 가치[達道]로 확장된다는 점을 표방하였다.¹²⁾ 군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점은 한글장편소설에서 군자형 인물들이 감정을 잘 절제할 뿐 아니라 내면의 감정도 좀처럼 표출하지 않는다는 성격적 자질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하는 잠자리에서조차 강한 정

하(床下)의 꾸러 안자 되서, 혹 문의(文意)를 못잡고 시스(詩詞)를 비화, 흐르 시(四時) 문안(問安)과 형실이 쇼학(小學) 가운데 넘은 일이 만흐니” 이대본 『소현성록』 1권 14-15쪽.

11) 조혜란은 소현성이 유교적 지식인이자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군자이며 인간적인 효자인 점에서 그가 17세기 조선사회에서 이상적이라 여긴 군자상의 전형이 재현된 인물이라 하였다.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2) 홍성민, 『감정과 도덕-성리학의 도덕 감정론』, 소명출판, 2017, 128쪽.

념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장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소현성은 오랜 기간 출정을 다녀온 뒤, 가장 사랑하던 부인 석명혜가 죽었다는 서모의 말에 속아 처음으로 부인을 위한 눈물을 흘리며 깊은 슬픔에 빠진다. 그러나 곧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고 석명혜와 재회하여 그날 밤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된다. 그런데 그토록 절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낀 그 순간조차 소현성은 “자리에 나아가기 전혀 소년의 전도(顛倒)한 경상(景狀)으로 부인의 친합(親狎)하야 설만(褻慢)하야 스모(思慕)하던 말과 어슈(魚水)의 즐기미 업서 평안이 즈기 침둥(枕中)”에서 잔다.¹³⁾ 소현성에게서 욕정, 정념 따위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술자도 “그 일년 밤의 타향(他鄉) 깃니(客裏)의 갖다가 도라와 정둥(正)한 부인으로 일실(一室)의 쳐하야 침둥(沈重)하미 이 곳 탁니 도로혀 빛기 나서 하는 일은 기특디 아니코”라며 소현성의 인품에 차탄한다.¹⁴⁾

그런데 소현성은 인격을 수양하는 데 몰두하고 감정 절제를 잘 하는 인물인 만큼 타인의 주체할 수 없는 정념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특히 아들들의 사랑의 감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소운성은 늑흔으로 명현공주와 혼인해야하는 상황에서 정실 형강아를 떠나보내며 절절하게 슬퍼하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데, 그가 보여주는 사랑의 간절함과 이별의 고통에 대해 소현성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그저 한심하다 여기며 엄히 꾸짖기만 한다.¹⁵⁾ 과연 소운성

13) 이대본 『소현성록』 4권 9쪽.

14) 이대본 『소현성록』 4권 9쪽.

15) 한편 소현성의 모친 양부인과 부인 석부인 등 소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소운성이 처한 처지를 연민하고 염려하며 형강아를 다시 소부로 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소현성은 다음과 같이 엄히 꾸짖기만 한다.

“대당뷔(大丈夫) 처세(處世)하매 일녀지(一女子)와 일처즈(一妻子)로써 구〃히 슬허하고 세〃히 눈물을 드리오미 엇디 붓그럽디 아니리오. 형은 부녀 텃눈(天倫)의 흠디 못하미 상시(常事)어니와 [운성은 혼 안히로써 저 경상(景狀)을 하네] 내 그 약하물 불헿하야 하느니 대당뷔(大丈夫)의 눈물이 엇디 간대로 썩리

은 정념에 쉽게 휩싸여 그것을 과잉 표출하는 인물이며, 천자의 명에 의한 늑흔에 형강아에 대한 그리움이나 명현공주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는 것이 가문을 위협하게 하는 일이기때, 가장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가문을 위해 운성을 제어하고 교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소현성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만 기인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다른 상황,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감정 자체에 대해 무심하거나, 규범적 잣대를 우선 대며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며느리 형강아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역시 냉담하게 꾸짖은 장면에서 그런 점이 잘 드러난다. 형강아는 소운성의 상사병을 계기로 다시 소부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후 그는 운성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대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명현공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그럼에도 형강아의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운성의 일방적 구애에 점점 더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 그러던 중 돌파구 없는 그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결국 자결을 감행하고 만다. 다행히 가족들의 구호로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 소현성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목숨을 부지하게 된 며느리를 마주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나무라기 바쁘다.¹⁶⁾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이나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단까지 해야 했던 삶의 고통은, 이유야 어쨌든 심상이 보아 넘길만한 가벼운 감정들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극도의 슬픔, 불안, 우울감을 느끼며 당면한 현재의 삶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데도, 소현성은 그 감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로인해 드러난 행위의 과도함, 과격함에 대해서만 지

미 이시리오.” 이대본 『소현성록』 6권 29쪽.

“엇디 뜻 잡기를 굿게 아나 필부(匹夫)의 신(信)을 디희고 당부(丈夫)의 강심(強心)이 업서 이 디경의 이시니 이 혼갓 제의 불형일 썬 아나 나의 운쉬(運數) 괴구(崎嶇) 흐미라” 이대본 『소현성록』 6권 96쪽.

16) “승상이 정식 왓 내 상시 그되로써 동달흔가 흐더니 엇디 조급흐미 심흐야 즈결 흐미 엇더노 만일 다시 즈결지심 곳 잇거든 우리 눈의 띄디 말나” 이대본 『소현성록』 7권 48쪽.

적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가 지향하는 옳은 가치들 앞에서, 인간이라면 느낄 법한 감정들은 절제하고 은폐해야 할 부정적 요소들에 불과해지고 만다.

기실 소현성이 엄한 가장으로서의 면모를 고수하며 제가(齊家)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누이 소월영의 도움이 존재한다. 소월영은 혼인 이후에도 1년에 8개월을 친정에 머물며 소부의 모든 일에 간여하는데, 호쾌하면서도 유연하게 갈등의 상황을 중재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이때 갈등 당사자들의 감정을 헤아리고 다독이는 방식으로 소부 구성원들을 보살핀다. 앞서 소현성이 형강아에게 모진 말을 했을 때도 소월영은 “헌데(賢弟)는 엇디 위로란 아니코 도로혀 꾸짖는뇨? 덜쳐(姪妻)의 슬허하고 통흔(痛恨)하야 죽고져 흐믓 인정(人情)의 상식(常事)니라.”며 소현성을 자제시키고 형강아를 위로한다.¹⁷⁾ 나아가 자신이 혼인 후 남편과 첩에게 당한 모욕과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처제 하의 고통에 공감과 연대를 표하면서 조카며느리를 다독인다. 이밖에도 소월영은 소부 구성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과오를 꾸짖으면서도 만회할 방도를 일러주는 등 구성원 개개인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가문 구성원들의 내면의 문제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여성인 것이다.

이에 비해 소현성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까지 소외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¹⁸⁾ 스스로 사정(私情)의 표출을 극도로 경계하며 감정을 억제하는 데 연연한 나머지 타인의 정념 표출에도 경직되고 엄격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 내면을 헤아리는 데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의 관심은 중도를 벗어난 그 행태의 옳지 않음을 교정하는 데만 집중되어

17) 이대본 『소현성록』 7권 48쪽.

18) 물론 소현성이 모든 인물들의 감정 상황에 무감한 것은 아니다. 특히 모친 양부인에게만큼은 온 관심을 기울여 미묘한 감정변화까지 신경 쓰며 배려하는데, 이로써 그의 효자(孝子)로서의 면모가 극대화되고 ‘군자’ 이미지가 완성된다. 효(孝)가 절대적 가치 이념으로 여겨지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부모의 감정은, 그것이 이성 잃은 분노로써 자신을 해치려 할 때조차, 자신의 목숨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며 배려해야 할 것으로 그려진다.

있다. 이처럼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군자형 인물은 이후 갈등서사에서 주변화되어 간다. 소설은 인간의 욕망 문제를 다루며, 문체적 인간이 일으키는 갈등이 서사를 추동하는 장르이기에 욕망의 발현과 거리가 멀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군자형 주인공이 다른 시도들로 대체되어 간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다.¹⁹⁾

실로 보다 강도 높은 부부갈등이 전개되는 『소현성록』 별전의 서사는 소운성, 소운명과 같이 호방형 인물에 의해 주도되고, 『유씨삼대록』과 같은 소설에서 역시 갈등을 발생시키며 중심서사를 이끄는 것은 “온동 과묵(穩重寡默) ㅎ여 군즈(君子)의 틀이”²⁰⁾ 있는 유세기 같은 인물이 아니라, 유세형, 유현과 같이 “풍뉴(風流) 영기(英氣)로 호걸(豪傑)의 틀”이 있고,²¹⁾ “거오(倨傲) ㅎ 습이 잇고 호상(豪爽)”한 “일세(一世)의 대당부(大丈夫)오 당디 영걸(英傑)”인 인물들이다.²²⁾ 그러나 소현성에게서 재현된 군자형 인물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설에서 변주되어 나타나게 된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완월회맹연』의 정인성, 『보은기우록』의 위연청과 같이, 불인(不仁)한 부모로 인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효행을 멈추지 않으며 부자갈등 서사를 이끄는 이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소인형 장인을 만나 장인과 대립하며 아내와도 갈등을 이어가는 『명주기봉』의 현홍린, 『옥원재합기연』의 소세경과 같은 이들도 등장한다. 군자형 인물에게도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마련되면서 각각의 특징을 지닌 군자형 주인공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무도(無道)하고 폭력적인 부모와 갈등 관계에 놓인 유연, 정인성, 위연청과 같은 이들은, 효의 수행이 주요하게 전개되는 갈등 서사에서 소현성과 같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다. 유연

19) 조혜란, 앞의 논문, 173쪽.

20) 국도본 『유씨삼대록』 1권 73쪽.

21) 국도본 『유씨삼대록』 1권 73쪽.

22) 국도본 『유씨삼대록』 11권 27쪽.

과 같은 인물은 효를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한층 더 과도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 아들과 같은 타인의 내면을 희생시키는 한편, 위연청과 같은 인물은 효의 근본인 '인'(仁)의 가치를 타인에게까지 미루어 아버지의 불의한 행위로 고통 겪는 이들을 연민하고 돕는데, 이처럼 추구하는 가치는 같지만 그것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대조되는 군자형이 형성되기도 한다.²³⁾

한편 장인과 대립하는 서사에서 군자형 인물이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도 있는데, 그들은 소인의 행실을 일삼는 장인을 용납하지 못해 처가 및 아내와 대립하며 격렬한 감정을 분출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명주기봉』의 현홍린은 물욕을 더러이 여기며 주색잡기를 극도를 꺼리는 완고한 군자로, 평소 감정을 잘 절제하며 예교적 태도를 철저히 고수하는 인물이다. 그는 권세를 부리며 백성을 약탈하는 장인 화정운을 혐오하여 부인 화옥수와도 오래도록 갈등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옳다는 확고한 신념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부인의 처지나 변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심지어 화옥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조차 일방적 감정을 내세워 잠자리에서 무력을 써 친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군자형 인물들은 자신의 인격적 우월성을 확신하며 타인의 욕망과 감정을 선뜻 이해하거나 관대하게 수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군자형 인물들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도덕적 기준, 감정 절제의 기준이 높아, 타인의 부적절한 욕망과 감정에 대해서도 부정(否定)하고 혐오하여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군자형 인물들은 감정, 욕망에 대해 절제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극단의 예교적 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타인에 대해서도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 표출은 엄격히 절제하면서도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군자형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히 『명행정의록』의 위천유에

23) 유연과 위연청의 효행을 비교 서술한 내용은 고은임(2019), 앞의 논문(48-71쪽) 참고.

게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호방형 인물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 다음 절에서 이어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위천유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자기중심적인 호방형 인물

호방형, 혹은 영웅형, 호걸형 인물이라 일컬어지는 남성인물 가운데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초(始初)로 일컬어진 『소현성록』의 소운성을 주목해보자.²⁴⁾ 소운성은 어려서부터 문인(文人)보다 무인(武人) 기질이 농후했으며 예법에 구애되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추구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 10세의 어린 나이에, 앵혈을 찍어 수치심을 준 석파에게 설분하기 위해 석파의 조카 소영을 겁탈한 데서부터 그가 얼마나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 없는 인물인지 알 수 있다. 형강아와 혼인할 때에도 중매혼의 외피를 빌렸지만 우연히 엿본 그의 모습에 매료되어 혼인을 추진하였고, 늑혼으로 이별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실성체읍(失性涕泣)하며 어른들 앞에서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다.²⁵⁾ 반면 열정적으로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상대가 자신의 감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물리적 위협을 가하며 폭언을 해댄다.

이뿐 아니라 자신보다 권력이 있는 인물에게도 불쾌감,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망설이지 않고 발산한다. 늑혼으로 형강아와의 이별을 야기한 명현공주에게 혐오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공주 앞에서 황제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시비를 따져 지적하고, 조모 양부인이 여승의 조언을 따르자 “노피(老母) 평일 과인(過人) 정도(正道)로 헝헝샤 일즉 비례(非禮)를 칙헝시더니 엇디 이런 일이 잇는뇨”라며 노기를 억제하지 못해 결국 양

24) 정선희(2011), 앞의 논문 참고.

25) “싱[소운성]이 임의 기다리다가 형시를 디헝야 실성체읍(失性涕泣)이라 반향(半响)이 디난 후 계유 말을 퍼 글오디” 이대본 『소현성록』 6권 19쪽.

“말로 조차 눈물이 닷치 ㅁ득헝야 금포(錦袍)의 뜻드르니 승상이 깃거 아냐” 이대본 『소현성록』 6권 29쪽.

부인의 화를 사기도 한다.²⁶⁾ 이 밖에도 소운성이 감정에 추동되는 지점은 서사 내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소운성은 그의 부친 소현성과 달리 감정을 절제하고 그것을 예법에 맞게 적절히 드러내는 방식에 별 관심이 없는 인물이다. 언행이 추동되는 데 있어 감정적 기제가 크게 작용하며,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는 인물인 것이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 정념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기에 소현성과 달리 소운명의 사랑을 이해하며 지지하기도 한다. 소운명이 순안어사로 나섰을 때 유랑하는 이옥주와 인연을 맺고 소부로 데려오는데, 이때 부친 소현성이 예를 내세우며 이옥주의 혼처를 다른 데 구해주고 운명의 비례(非禮)를 벌하려 하자, 운성은 동생의 마음과 이옥주의 사정을 헤아려 둘이 혼인시킬 것을 청한다. 소현성으로서는 운명의 비례한 행위를 용납하기 어려웠지만, 운성은 이옥주를 향한 운명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운성은 자신의 감정에 상대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감정에 지독할 정도로 무감하며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가장 강력한 감정이 발산되며 갈등하는 관계인 부부관계에서 그런 점이 잘 드러나는데, 그는 소영, 형강아, 명현공주와의 갈등상황에서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분출하고 강요하며 폭력적 행태를 보이는 일이 많다.²⁷⁾

가장 큰 애정을 품고 있던 형강아를 사랑하는 순간조차 그는 상대의 처지와 마음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늑혼으로 출거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소부에 들어온 형강아는 자신을 시기하는 명현공주를 의식할

26) 이대본 『소현성록』 10권 94-95쪽.

27) 부인에 대한 소운성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주목되어왔다.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소운성은 그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현공주에 대한 혐오감과 형강아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명현공주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서 형강아는 괴로움에 못이겨 자살을 시도해보고 죽음을 위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대면하면서도 운성은 그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 존재하는 고민과 고통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기보다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에 분노를 분출하기 바쁘다.²⁸⁾

이로써 보면 소운성은 소현성과 달리 감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몰입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려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호방형 성격이 이후 한글장편소설에서 역할 비중이 높아지며 서사를 이끌어가게 된다.

특히 부부갈등 서사가 중점적으로 전개된 작품에서 그러한데, 『유씨삼대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호방형 인물 유세형과 유현의 서사이며, 『명주기봉』에서 역시 여러 인물서사 가운데 현천린, 현명린, 이기현 등의 호방형 남성인물의 부부서사가 가장 강도 높은 갈등을 이루며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들은 부부갈등을 야기하고 여성인물에게 외적, 내적 갈등을 부여하는 질곡의 장본인이 되어 장구한 부부서사를 추동하게 된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가하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의 정도가 소운성의 행태에서 보다 강화되면서 피해의 정도도 더 심각해진다. 실로 유세

28) 명현공주를 외면하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소운성의 행태에 어찌할 바를 몰라 형강아는 친정에 가 있겠다고 말하는데, 이때도 소현성은 분노하며 집기를 깨부수고 위협한다. “부인이 방즈한다. 나 소운성이 비록 적춘서생(尺寸書生)으로 인성이 명현공주 장등(掌中)의 이시나 쏘흔 숙릭(菽麥)을 분변흐느니, 님군의 쫘은 감히 제어(制御)티 못흐려니와 엇디 형옥의 녀즈조차 제어(制御)티 못흐리오.(중략) 언필의 안식의 노귀 그득흐야 크게 소리 디르고 칼홀 드러 알피 노흔 바를 산” 이 보으티니 분기(憤氣) 임의 두우(斗牛)를 게티덜디라.” 이대본 『소현성록』 7권 31쪽.

형은 공주라는 신분도 개의치 않고 부인 진양공주를 폭행하며, 유현은 출거했지만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부인 장설혜를 직접 칼로 베어 살해한다. 현천린도 분노의 순간 월성공주를 폭행하고, 현명린, 이기현 역시 아내에게 물리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한다. 『유씨삼대록』, 『명주기봉』 이외에도 갈등 상황에서 부인을 폭행하거나, 잠자리에서 무력을 써 겁탈하는 등의 행태가 한글장편의 호방형 남성인물에게서 흔하게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여 스스로는 중절지화(中節之和)의 태도를 견지하지만, 그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정념을 분출하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현성과 같은 군자형 인물이나, 인간은 때때로 정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중심성이 강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소운성 같은 호방형 인물이나, 모두 자신과 마주하는 타자의 감성 작용에 대체로 무심한 것은 매한가지이다. 남성인물에게서 여성인물의 질곡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까지 한다.

3. 공감하는 남성, 『명행정의록』의 '위천유'

우리는 앞서 한글장편소설의 남성인물들이 타자 내면의 문제, 특히 여성인물의 감정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작품 내 훌륭한 인물로 칭양되는 이들은 지인지감(知人之鑑)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인지감이란 타인을 판단하는 안목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덕이 있는지 없는지 등, 상대의 인물됨에 대해 시비판단하는 능력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지인지감이 있는 인물들은 비루해 보이는 인물에게서 숨은 능력이 있음을 간파한다든가, 범상한 이들이 훌륭한 인물로 보는 이에게서 내면의 악을 간취하곤 한다. 소현성은 구걸하

는 걸인에게서 비상한 인품과 뛰어난 문재(文才)를 알아보고는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고, 『유씨삼대록』의 유우성과 이부인은 모두가 감탄하는 장혜영의 아름다운 자태에도 그 마음속 악의 기운을 경계한 바 있다. 군자형이든 영웅형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이나 인물 유형에 상관없이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된 이들은 대개 이러한 지인지감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인지감이 있는 인물이라 하여도 타인의 내면 문제, 감정적 문제에 대해 늘 관심을 기울이며 잘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그것은 인물의 선악, 시비를 평가하는 데, 혹은 그로 인해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데 발휘되는 능력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의 지나친 욕망의 발현, 부적절하거나 부정적 감정 표출을 알아채 단속하고 경계하는 때에 주요하게 작동한다. 소현성이 지인지감이 뛰어난 인물이지만 감성 작용에 대해, 특히 사단(四端)에 부합하지 않는 격정적인 감정에 대해 교화시키는 데 집중할 뿐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살핀 바와 같다.

소월영의 사례에서 보았듯 한글장편소설에서 타자, 특히 여성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며 보살피는 것은 여성인물인 경우가 많다. 소월영은 소운성과 같듯하다 자살을 시도한 형강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 고통에 공감을 표하거나, 경솔한 언행으로 남편 소현성과 시모 양부인의 화를 돋우는 화부인에 대해 그 잘못을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주며 화해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다른 한글장편소설에서도 소월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대개 여성들이다. 한글장편소설은 특히 여성들의 고통이 폭진하게 그려진 서사이기에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다독여 가는 것은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 여성들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명행정의록』의 위천유는 타인의 감성, 특히 변민, 고통 등 내적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인물이다. 위천유는 위연청 셋째

아들로 부친의 예의행덕(禮義行德)을 가장 잘 물려받아 군자라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형제 가운데서 지인지감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진중하며 온화한 성품을 지녀 형제들이 처할 위기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간파하고 대처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물, 그리고 시비(侍婢), 시노(侍奴), 기생과 같은 하위주체를 대할 때도 예적 태도를 잃지 않는다. 불과 7세 나이에, 부친의 원수를 갚는다며 부친이 놓아준 반노(叛奴)를 도로 잡아 죽이려다 여의치 않자 훼손단이(毀面斷耳)라도 하여 분풀이한 첫째 위천보나, 자신의 앵혈을 없애기 위해 시비의 양녀 교강선을 겁탈한 셋째 위천강과 달리 하위주체를 함부로 타자화하여 폭력적 행위를 하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런 위천유도 혼사 장애를 겪고 배우자와 갈등할 순간을 맞닥뜨린다. 그는 일찍이 장상서의 딸 장현교와 정혼한 사이였다. 위천유와 장현교는 예법에 따라 무탈하게 혼례를 진행하면 되는 관계였으나, 적모(嫡母) 윤부인의 계략으로 인해 장현교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장현교의 탄생 비화가 드러난다.

장현교의 탄생 비화란 이렇다. 장현교는 본디 장상서의 딸이 아니라 초왕과 소왕비 사이에 탄생한 군주였는데 초왕의 후비 허씨가 이를 질투하여 군주 납치와 살해를 사주한다. 이때 조력자가 나타나 군주를 구하고 때마침 군주와 같은 나이의 아기를 잃은 남씨에게 군주를 맡겨 기르게 하는데, 남씨가 잃은 아이가 바로 장상서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던 것이다. 남씨는 장상서의 정실이 아니라 외정(外情)으로 맺은 후처였는데, 자신의 집에 가끔 들르는 장상서에게 딸이 바뀐 사실을 숨겼고, 이후 장상서 집으로 들어가 살다가 요절하고 말아 군주는 장현교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초왕과 소왕비를 비롯한 황가 인물들은 기뻐하며 장현교를 문창군주에 봉하는데, 위천유만이 장현교의 탄생 비화에 자신의 혼사를 회의하게 된다. 문창군주의 친부 초왕이 과거 위천유 부친 위연청을 부당하게 해하려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²⁹⁾

초왕은 딸과 재회한 일과 위천유를 사위로 맞이할 일을 모두 기뻐하는데 위천유는 초왕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한글장편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응서대립담의 빌미가 『명행정의록』에도 마련된 것이다.³⁰⁾ 여느 응서대립담처럼 위천유는 장인의 인격을 혐의하며 혼사를 폐하려 한다.³¹⁾ 그러나 부친 위연청이 초왕에 대한

29) 초왕이 위연청을 해하려 한 일은 『명행정의록』의 전작 『보은기우록』에서 전개된 일이다. 초왕이 허씨에게 침닉하여 허씨 부친이 저지른 살인죄를 은폐하는데, 이 일을 위연청이 드러내 황제에게 직접 간언을 올리니, 이 일로 앙심을 품은 초왕이 위연청의 살해를 사주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수로 끝나고 훗날 초왕이 개과(改過)하여 위연청과 화해하는데, 위천유는 여전히 초왕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다.

30) ‘응서대립담’은 장인과 사위가 대립하는 이야기로 송성욱이 대하소설의 특징적인 단위담으로 추출한 이래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아왔다. 특히 군자의 입장에서 소인인 장인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남성과, 아무리 소인이지만 아버지를 능멸하는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성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유씨삼대록」, 「명주기봉」,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 「완월회맹연」 등 다수의 작품에 주요 단위담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풍부한 편이다. 그런데 응서대립담에서 장인이 반드시 소인형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영웅형 인물 유세형과 사위 소경문이 대립하는 서사가 그려지기도 했다. 관련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양민정,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응서, 구부간 갈등과 사회적 의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2, 경인문화사, 1999;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1;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응서대립담 연구」, 『고소설학회』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31) “(…)인지 되어 즈긔으로 부형을 히코져 흐던 즈로 죄를 업다 흐고 츠야 반즈지의(半子之義)를 출혀 그 쫘노 안히를 삼으리오. 이는 스빅과 망녕도이흐 장상소의 비길 비 아니어늘 엇지 이를 모로시리오만은 불힘이 아지 못흐고 빙폐(聘幣)를 힘흔 고로 마지 못흐여 일이 순흐를 위흐시미니, 만일 장니부의 쫘이 도지 아니코 초왕이 구흔흐연던들 엇지 허흔(許婚)흐여 불인(不仁)흐 왕을 인연흐고 우형(愚兄)으로 부형지슈(父兄之讐)와 악장(岳丈)을 삼게 흐리오만은, 부모지십

위천유의 무례함에 노여워하자 결국 천유는 고집을 꺾어 부친의 뜻에 따라 혼사에 응한다. 지극한 효성으로 인해 아버지를 해하려 했던 초왕에게 원한을 풀지 못하지만, 또한 그 지극히 효성스러운 마음에서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문창군주가 자신의 친부 초왕의 불의(不義)를 혐의하여 위천유가 혼례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심적 압박을 받고 병들고 만다.³²⁾ 문창군주로서는 부친을 위한 마음으로 혼사를 거부하려는 위천유의 처사가 이해되면서도,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어 차라리 독로(獨老)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고, 이에 병세가 위태로워진 것이다. 이에 장상서나 초왕 등 문창군주의 친정 식구들은 군주가 왜 병이 들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그저 병증을 치료하며 나아지기를 전전긍긍 바라는데, 천유는 문창군주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짐작한다.

① 싱은 비록 덕의(大義)로 혼인을 진실노 원치 아니나 임의 별안간 보미 잇고, 언어동지(言語動止)를 즈시 슬퍼 진실노 하궤(河洲)의 아람다운 숙녀오, 군즈의 조흔 짝이믄 아라시니, 그 병이 니러툷 중흐믄 드

(父母之心)은 즈식의 인륜(人倫) 폐치 말고져 흐스 혐의를 파탈흐시나 나의 도리야 엇지 그 스회 되리오. 야야(爺爺)의 정흐신 비 나의 뜻을 허치 아니시리니 만일 일시 장칙(杖責)으로 역명지죄(逆命之罪)를 다스릴진디 감슈흐여 근심치 아니려니와 만일 별단 엄칙(嚴責)으로 면홀 길이 업슬가 념예 이의 밋츨미 침식(寢食)이 평안하라.” 한중연본 『명행정의록』 26권 8앞.

- 32) “군궤(郡主) 장공의 말노 위싱이 너치며 사랑가지 견칙(譴責)흐믄 드르니, 부왕(夫王)의 작스(作事)로 결혼코져 아니미 당연흐고 인즈지도(人子之道)의 이 거죄 당연흐고, 진공이 부왕(夫王)을 논획(論劾)흐여시니 당당흔 직언(直言)을 혐의를 거시 아니로되 피척 유혐(有嫌)흐니, 진공이 민면순종(黽勉順從)흐나 하면 목(何面目)으로 안히 되고 위친(爲親)흐믄 그르케 흐고 종신무안(終身無顏)을 취흐리오, 하니 이 일이 업스나 성혼(成婚) 전 면목(面目)을 디흐며 친히 상근(相近)흐믄 종신지탄(終身之嘆)을 삼던 바로 엇지 인륜(人倫)을 일위 위가의 부례(婦禮)를 헹홀 마음이 이시리오. 스스로 밍세흐여 스위 부모를 피서 독노(獨老)흐기를 정흐나,(…)” 한중연본 『명행정의록』 26쪽 25앞-뒤.

르미 만일 쇠옥낙화(碎玉落花)하미 이시면 그 성즈기질(聖者器質)을 그
 옥이 앓기고, 일변 초왕의 스회되지 아닐 바는 히롭지 아니커니와, 약난
 (若蘭)이 회문(回文)을 쓰미 두죄(寶滔) 프러니니 비록 네를 일우지 아
 나시며 언어를 문답하미 업스나 그 위인을 임의 보앗는 고로 그 마음을
 짐작하미 잇는지라. 그 병을 일위미 즈가 쇼집(所執)을 드러 비로스물
 썩다라 그옥이 츠석(嗟惜)하미 이시디 뉘 그 마음을 알니오?(한중연본
 『명행정의록』 27권 3뒤~4앞.)

그리고 부친의 명을 받들어 의술을 발휘하여 직접 문창공주의 병을
 치료한다. 여기서 문창군주의 내면을 가장 적실하게 읽어내는 것은 위천
 유이다. 위천유는 문창군주의 침묵에 친정식구조차 짐작하지 못한 그 내
 면의 고통을 헤아리며, 자신으로 인해 병이 든 군주에게 애달픔과 연민
 을 느낀다. 그리하여 그동안 혼사를 극히 꺼려 초왕을 피해왔지만 양직
 사의 말대로, “너심은 군주 병으로 노심초스하다가 친히 보게 되물 짓거
 조금도 스양치 아니코” 진심으로 걱정하며 정성을 다해 군주를 치료한
 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문창군주는 위천유의 정성스러운 치료에 회복
 되고 위연청의 배려로 마음을 안정시킬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천유와 혼
 인한다. 이때까지도 천유는 초왕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해 군주의 양부
 (養父) 장상서와 유왕에게는 온화한 태도로 예를 다하지만 초왕에게만
 은 냉담한 태도를 견지한다.³³⁾ 그런데 이처럼 초왕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문창군주를 대하면서도 장인에 대한 불평한 마음을 결코 군주에게

33) 유왕도 문창군주의 양부이다. 일찍이 소왕비가 문창군주를 낳은 뒤 허씨의 질투
 가 심해지자 군주에게 해를 끼칠까 우려한 초왕이 동생 유왕에게 맡겨 키우게
 한다. 유왕에게 보내진 뒤 허씨의 사주로 문창군주가 납치되었던 것이다. 다음
 은 초왕에 대한 위천유의 태도가 드러난 서술이다.

“초왕을 디혀는 비록 엄명(嚴命)을 두려 화기(和氣)를 강작(強作)하고 황홀이
 사랑호를 당하여 성식(聲色)을 불슈(不隨)하나 봉안(鳳眼)이 나죽하고 옥면(玉
 面)이 닝담하니 왕이 심히 괴습하여 마음 펴 사랑호를 유왕과 갖치 못하더라”
 한중연본 『명행정의록』 27권 35뒤.

웁기지 않는다.

한글장편소설의 응서대립담에서 남성들이 장인에 대한 노여움을 부인에게 분풀이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군자형 인물도 장인에게 느낀 불만을 무고한 아내에게 옮겨 친정 가족과 아내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폭언을 퍼붓기도 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순(舜)에 비견되며 성인으로 추앙된 유연은 부친 유정경의 명백한 과오에 대해 장인이 상소하려 했던 과거 일을 탓하며 부인을 출거시킨 바 있다. 특히 비례한 행위를 일삼으며 자신의 가문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서사에서, 군자형 인물이 부인에게 냉담히 대하고 모욕적인 험담을 늘어놓는 예는 허다하다. 이런 경우 부인들은 아무런 직접적 잘못이 없음에도 부친의 과오에 대한 죄의식을 짊어진 채 남편의 멸시와 모욕을 감내한다.³⁴⁾ 소위 군자형 인물이란 이들도 혐오, 분노 등의 치밀어 오르는 부정적 감정들을 어찌지 못하여 부인에게 화풀이하거나 냉담히 구는 일상의 지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위천유는 이들과 달리 장인에 대한 원한을 절대 부인에게 옮기는 일이 없다. 오히려 자신이 혼사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문창군주에게 알려진 일을 걱정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고 괴로울지 헤아린다. 그는 스스로도 부모의 명에 어쩔 수 없이 혼쾌하지 않은 혼인을 했으면서도 자신의 입장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보다 더 곤란한 처지의 문창군주를 염려한 것이다. 다음은 첫날밤 두 사람이 대면하여 나눈 대화이다.

② 그옥이 인정(愛敬)하여 저의 마음의 즘협(自嫌)하느 뜻이 즘가의 소집(所執)으로 인하를 아는지라. 잠간 그 뜻을 알게 하고져 하디 (중략) 한님[위천유]이 비로쇼 네로써 군주를 청하여 편히 설시 비록 번다히 장화(長話)를 여지 아니나 은은이 즘가의 뜻을 빗최여 알게 하니, 네중(禮

34) 관련 논의는 다음을 참고. 정병설(2000), 앞의 논문; 이지하(2001), 앞의 논문; 한길연(2003), 앞의 논문.

重)하디 은근하고 화평하디 단엄하디라. 군취 네의를 심스(深思)하고 부도(婦道)를 닮이 아니 오직 이순위정(以順爲正)하여 무비무의(無非無儀)를 삼가던 바로 금번 자괴인협(自愧引嫌)하여 인병치스(引病致死)하미 엇지 그 본령이리오. 깃히 사름으로 하여곰 부형지슈(父兄之讐)를 결연하여 누연하며 고염하물 더으지 아니려 하엿더니, 저 군즈의 간략하 말습이 곱하여 낫하니여 니르지 아니나 관포(管鮑)의 마음을 헤아리고 유종의 곡조를 지음(知音)하물 귀타 못홀지라. 무슨 고절(孤節)노 빈계스신(牝鷄司晨)을 효측(效則)하리오. 오직 부화처순(夫和妻順)하느 네를 힘하며, 건강곤유(乾剛坤柔)를 효측(效則)하니 군즈는 묵묵(默默)하고 숙녀는 정정(貞靜)하디라, 금(琴)과 슬(瑟)이 곡조를 화(和)하고 종(鐘)과 괴(鼓) 소리를 합하니, 진실노 원앙이 교경(交頸)하며 봉황이 화명(和鳴)하미라(한중연본 『명행정의를록』 28권 12뒤~13앞.)

자신이 혼사를 거부한 일로 문창군주가 자협(自嫌)하는 바를 염려하여 그 일에 대해 대화한다. 위천유는 “네중하디 은근하고 화평하디 단엄”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내고, 군주 역시 천유의 마음을 이해하고 불편함을 해소한다. 둘은 서로 상대의 입장과 내면을 헤아리며 이후 “금(琴)과 슬(瑟)이 곡조를 화(和)하고 종(鐘)과 괴(鼓) 소리를 합”하는 지음 관계의 부부가 된다.

여기서 위천유가 문창군주를 대하는 태도에는 상대에 대한 ‘공감’(共感, empathy)의 정서 작용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공감에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인지적 요소는 타인이 느끼는 바에 대해 ‘알고’, 그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정서적 요소는 타인이 반응하는 상황에 처하여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에 가깝다.³⁵⁾ 위천유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욱 뛰어난 인물로, 그의 공감 과정에는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소위 지인지감(知人之鑑)과 같은 지적 기제가 활발히 작동한다.³⁶⁾ 그리고 그의 지인지감 능력은 상대에 대해 평

35) 박성희, 『공감학-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47쪽.

가하고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하며 보살피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그의 공감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 상태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상대를 이해하게 한다.

위천유의 공감능력은 부부 관계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간취하여 상대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적절한 위로를 건네곤 한다. 이러한 그의 공감력이 다시 한번 크게 발휘된 것은 동생 위천강의 횡포에 제수(弟嫂) 양현강이 내적 번민에 휩싸여 있을 때이다.

위천강은 곧잘 정념에 휩싸이는 다혈질적 인물로 양현강을 격정적으로 사랑하다가 현강이 간부와 사통했다고 의심되자 격렬한 분노를 표출한다. 그것은 기실 차위(次位) 교강선이 원위(元位)를 차지하려 꾸민 여러 가지 모함에 위천강이 성급하게 빠져든 결과인데, 그는 폭력적 행태를 보이며 양현강 면전에서 그 시비를 베고 이어 현강도 죽이려 한다. 다행히 때마침 위천유와 문창군주가 현장에 도착해 사태를 수습하면서 양현강이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현강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간부(姦婦)라 의심받자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자신의 귀를 베고, 이후에는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다. 위천강의 의심과 폭력적 행태에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도(女道)를 내재화한 인물인 까닭에 이후 위천강이 장책(杖責)을 받는다는 소식에는 한 걸음에 나아가 시부에게 남편의 죄를 용서해 달라 청하고, 몸이 상한 위천강 곁을 지키며 깍듯하게 간호한다.

이미 양현강을 모함했던 교강선은 출거되고 관련자들도 엄중히 처벌 받았으며, 양현강에 대한 누명도 씻겨 부부 간 외적갈등이 해소되었으

36) 인지적 요소가 공감의 지배적인 특성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공감은 인지적 인 기능(cognitive skill)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예언능력(interpersonal predictive ability)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되는데, 위천유는 이러한 점에서 뛰어난 공감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책, 49쪽.

니, 이제 위천강의 몸이 회복된다면 두 사람 사이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 앞에서 완벽한 부도(婦道)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현강은 기실 아직 심적 안정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③ 서휘[위천보] 소왈(笑曰), “아등(我等)이 일삭(一朔)을 구병(救病) 하디 능히 나으믄 보지 못하리러니, 명현각의 드러가미 십여일이 맞지 못하여시디 쾌히 완합(完合) 소성(蘇醒)하니 디인(大人)이 명성(明星)하신 심각과 즈여의 즈상(仔詳)하 헤아리믄 비로소 탄복하노라.” 총지[위천유] 칭[위천강]을 도라보고 미소(微笑) 왈, “중예 여익(餘厄)이 미진(未盡)하여시니 쏘 한번 놀날지라. 저는 마음을 프러 병이 나았거니와 양췌 것츠로 프러시나 속을 프지 아나신즉, 두리건디 명현각 병와(病臥) 하엿던 상이 쇄소(刷掃)하믄 엇지 못할가 하노라.” 부인이 뜬득 황연이 놀라 왈, “너 본디 이 녀너를 품엇더니 네 말을 드르니 더욱 놀납도다. 녀이 가히 가 불지어다.”(한중연본 『명행정의록』 53권 32앞.)

④ 흉복(胸腹)의 울만흔 괴운이 돌갓치 밋쳐 삼촌(三寸)의 괴운이 승강(昇降)치 아니하고 녹경의 혈낙(血絡)이 운헝치 못하흔 고로 헛 괴운이 우흐로 올라 목은 정신이 더욱 뇨료(擾擾)하더니, 한번 총지의 단엄하 말노빠 맞춘디 소집(所執)을 세우지 못할 바를 슬허하고, 니제 상이 나가디 곳이 수렴(收斂)하던 마음으로써 저기 히티(懈怠)하므로조츠 잠간 상상(床上)의 쉬고져 하다가, 홀연 가슴 가운데 깃 썩는 듯흔 쇼릭 나며 구혈(嘔血)이 십 솟 듯하니 흡타(吸唾)하기를 기다리지 아나 서안(晝案) 아리믄 괴듯하고 업더져 혼절하미라.(한중연본 『명행정의록』 53권 33앞.)

③에서 양현강의 간호로 회복된 위천강이 비로소 어른들께 문안인사를 하는데, 위천보가 자신들이 구호할 때는 천강이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더니 제수의 간호로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쾌되었다며 농을 던진다. 이에 위천유는 천강은 마음을 풀어 병이 나았지만 양현강은 겉으로 괜찮은 듯 보여도 마음을 풀지 못했다는 말을 한다. 이 말에 모친도 놀라 현강을 걱정하며 사람을 보내는데 과연 그는 위천유의 추정대로 “흉복

의 울만한 기운이 돌갯치 밋쳐” 혼절해 있었다. 때마침 발견한 가족들의 구호로 의식을 회복하지만 양현강은 이후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한다.

시일이 지나도 마비증세가 지속되자 가족들이 걱정하며 의술이 뛰어난 위천유에게 방도를 찾으니 천유는 양현강의 병증을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동안 현강이 겪어왔던 정신적 외상[trauma]에 주목하여, 그러한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한 심적 압박을 해소하지 못한 까닭에 신체적 병증이 나타났다고 진단한 것이다.³⁷⁾ 그리하여 양현강을 대면하고 현강 스스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마음의 울화를 간파하여 그 고통의 기억들을 풀어낸다.

기실 양현강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아버지는 정적(政敵)에 의해 처형당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장례 중 현강 눈앞에서 자결했다. 불과 그의 나이 10세 때의 일이다. 이후 우처사의 호의에 그 집에서 지냈지만 마을 무뢰배들의 겁탈 위협에 시달렸고, 혼례 후에는 마음을 놓을 새 없이 남편 위천강에게 심각한 육체적, 성적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간부(姦婦)의 누명을 써 천강의 발검해거(拔劍駭擧) 사태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토록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으며 살아왔으면서도 양현강은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항상 여도(女道)에 부합한 규범적 태도를 고수하며 온화함 속에 내면의 상처를 숨겨왔다. 현강 스스로도 내면에 쌓여가는 고통을 제대로 대면한 적이

37) 실제로 정신적 문제는 신체적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체화'(somatization)라고 한다. 이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정서적 고통 혹은 감정 상태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하여 정신병 분류 및 진단 절차에 사용되는 DSM-5(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양현강의 마비 증세는 신체화 가운데, 신경학적 질병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경 쇠약, 마비, 떨림, 근육긴장이상 같은 증상을 보이며 심리적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나 외상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와 유사해 보인다. APA, 권준수 외 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학지사, 2015, 333-345쪽.

없었다. 그런데 위천유가 논증(論症)하는 과정에서 마치 양현강의 삶을 고스란히 본 듯, 들은 듯 그 일들을 차근차근 세세히 풀어내면서 그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위로해준 것이다.

⑤ 양소계 금병(金屏)을 지혀 양수(兩手)를 겨요 슬상(膝上)의 노코 고기를 나죽이 하고 고요히 듯기를 다하며, 즈가의 마음 속 먹음은 쓸과 가슴 가운데 몽켄 거시 처음 불과 탄즈(彈子) 갖더니, 점점 아란(鵝卵) 갖하여 괴식(氣息)을 조츠 승강(昇降)하든 일즉 설영 등도 하지 못하거늘, 총지[위천유] 본 듯하며 드룬 듯 하든 니르지 말고, 곤뇌(困惱)흠과 괴핍(氣乏)흔 줄 모르물 스스로 괴이히 너기나 쏘 썩닷지 못흔 바를 이 갖치 홀연이 의논하니 듯고 싱각하니 과연(果然)흔지라. 차츰 드러오미 홀연 가슴 가운데 은연이 나리는 것이 이서 달닌 거시 줄이 썩러지는 듯하고 흉격(胸膈)이 통연(洞然)하여 야활무이(野闊無碍)흔 듯하니 문득 부지불각지중(不知不覺之中) 옥수(玉手)를 드러 운환(雲鬢)을 슈렵하고 무릎흠 옮겨 좌를 곳치니 침병(沈病) 후 능히 못하든 비라 (한중연본 『명행정의록』 54권 8뒤~9앞.)

위천유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내는 것을 귀 기울여 듣던 양현강은 마음 속 응어리가 풀어짐을 느끼며 서서히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위천유의 뛰어난 의술 감각과 탁월한 공감능력이 어우러져 현강의 병을 치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양현강에게는 남편이 아닌 가해자로 느껴질 위천강에게 현강과의 관계에서 성급히 보채지 말고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며 경대(敬待)할 것을 당부한다.

이처럼 위천유는 양현강의 심적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꼭진하게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고 섬세하게 당사자에게 전달하며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한다.³⁸⁾ 그가 지닌 공감능력

38) 상담이나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공감의 요소 가운데 의사소통적 요소를 중시한다. 즉 공감하는 행위는 타자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이해한 비를 적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할 때 완성된다는 것인데, 공감을 이해현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양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로

은 『명행정의록』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나다. 작품 내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체로 형상화되며 지인지감의 능력을 화려하게 발휘하는 위연청, 백승설 부부도 위천유만큼 내적 고통을 겪는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 감성을 섬세히 읽어내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의 인물과 견주어도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양현강의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의사라는 점과도 관련되는데, 이때 그 의술의 '탁월함' 역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학에서는 본디 심신이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전제 위에서 병증을 파악하고 치료하지만 위천유의 접근방식은 예사롭지 않다. 양현강의 병에 대해서도 단순히 심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파악하고 일방적으로 처방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픔을 차근차근 풀어내 양현강이 그것과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돕는 상담자 역할까지 훌륭히 해내고 있는데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양현강을 치유한 그 탁월한 능력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에서 비롯하며,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또 그것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감성의 문제, 심리의 문제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인간에 대해 특히 여성인물의 내면에 대해 여성과 같이, 아니 오히려 여성인물보다 더욱 능숙하게 헤아리고 이해하며 위로하는 남성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인물의 고충이 그려지고, 그것이 복선화음(福善禍淫)으로 귀결되며 보상받고 주변인물에게도 인정받는 이야기는 한글장편소설에 술하게 등장하고, 그 고충은 대개 비슷한 처지의 여성인물들에게 공감되고 위로받아 왔다. 이때 남성인물은 여성에게 고통을 부

써 볼 때 위천유는 공감능력을 발휘해 심리치료를 수행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된다. 박성희, 앞의 책, 57-58쪽.

여하는 존재이거나, 여성인물의 편에 서더라도 갈등하는 그들의 내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위천유의 등장으로 공감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고, 여성의 내면에 대한 관심도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4. 결론 : 공감하는 남성인물 등장 의의

『명행정의록』의 남성인물 위천유는 고통을 겪는 여성인물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꼭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는 마뜩찮은 장인에 대한 불만을 아내에게 전가시켜 용서대립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못 남성인물과 달리, 원치 않은 혼인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불쾌한 감정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난처한 입장과 위축된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며, 양현강이 여성으로서 겪은 아픔을 누구보다도 꼭진히 읽어내어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깊은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였다. 군자형 인물은 감정적 문제에 무심하거나, 호방형 인물은 자기감정에만 몰입한 나머지 여성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며 고통을 야기하는 주체가 되는 서사가 가득한 한글장편의 세계에서 위천유의 존재는 특기할 만하다.

그런데 위천유의 성격적 특질은 작품 내에서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설명된다. 부친 위연청은 전작 『보은기우록』에서 『명행정의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온화한 군자형 인물로 형상화되었는데, 그는 『보은기우록』에서 부친에게만큼은 맹목적인 정도의 극단적인 효행을 실현하며 자신의 감정을 사상시키지만, 타인의 어려움은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을 직접 해소시켜주는 인물이었다. 부덕(不德)한 부친의 횡포에 맞닥뜨리고서도 온유한 태도로 효행을 다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민하며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위연청이 주변을 돕는 일은, 수전노처럼 재산증식에 몰두하며 타인에게 금전적 도움 주기를 극도로 혐의하거나, 나아가 고리대금으로 약탈적 경제활동을 하는 부친 위지덕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므로, 그가 선의를 베풀면 베풀수록 외적, 내적 갈등은 심각해졌다. 그런데 이때 위연청은 부친을 사랑하듯, 그 마음을 주변, 사회적 관계에까지 확장시켜 인의(仁義)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효행이라 사유하며, 감당키 힘든 부친의 업책을 받으면서도 주변 돕기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신념에 찬 행위의 근거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성작용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연민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시키려 노력했던 위연청의 성품과 그 언행이 아들 위천유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위천유는 인간 내면을 깊게 이해하고 심적 고통을 섬세하게 간취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 위연청의 공감능력은 사회적 관계로까지 넓게 확장되고 있어 그것에 내포된 사회적 함의가 크다면, 위천유의 공감 능력은 가족 관계 내에서 긴요하게 발휘되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심리 작용에 대해 한층 더 예민하고 깊이 있게 인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정교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가문 내 여성의 내적 고통에 이토록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을 해소시키려 노력하는 위천유의 존재는 작품의 의식지향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명행정의록』에서 문창군주의 내적 번민, 양현강의 고통은 신체적 병증으로 나타나 큰 위기로 부각되면서 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로 조명되었다. 여성인물이 겪는 위협, 폭행 등의 위기들이 남편, 시가식구들의 인정, 안락한 여생의 보장만으로는 쉽사리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사안으로 다뤄진 것이다. 즉 위천유의 활약으로

39) 이러한 인물 성격 분석은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서사와 인물을 연속선상에서 바라본 관점에 기반해 있다. 두 작품은 이질적 요소들이 많지만 전편과 후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고통받는 여성의 내면이 서사 전면에 확대되어 드러날 수 있었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하고도 깊이 있게 다뤄지면서, 『명행정의록』에서 가부장적 유교 질서 하의 약자인 여성들의 문제에 한층 더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는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기실 『명행정의록』은 여성의 정념에 대해 전향적 관점으로 다루고, 부부관계의 위계성은 약화된 반면 상호적 관계가 지향되는 서사가 전개된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에서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하위주체 여성인 시비, 기생과 같은 이들의 내면이 조명되고 보살펴지기도 하는 등, 약자의 삶이 차등적 유교 질서 내에서나마 존중되고 배려되는 세계가 그려져 있다.⁴⁰⁾ 이와 같은 약자의 욕망과 내면이 존중되는 작품세계가 형성되는 데 여성에게 공감하는 위천유의 존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약자에게 공감하는 남성인물의 등장은,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공감 주체와 공감 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

한편 위천유의 공감 행위는 개인의 정신적 병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에서 심적 고통이 신체적 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비근한 예로 상사병은 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모티프이며, 갈등 상황에서 흥분한 나머지 혼절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신체적 병증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성인물이 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해하거나 자결하는 경우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의 심리적 고통이 드러나는 방식은 극적인 데 비해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은 소략하고 단순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상사병은 그 대상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면 곧 회복되거나, 자해, 자결한 경우 외상을 치료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기까지의 심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관심은 스멀스멀 사라진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는 듯, 정신적 고통의 치료 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작품

40) 관련 내용은 고은임(2019), 앞의 논문 참고.

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명행정의록』에서 양현강의 사지가 마비되면서 정신 질환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그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서사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살폈듯 위천유가 양현강을 치료한 장면은 일종의 상담 치료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그 방식이 조악하고 단순할지라도 위천유는 양현강이 앓고 있는 병의 본질을 간취하여 심리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정신 질환을 치료한 것이다. 정신 질환의 개념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작품에서 이처럼 인간 심리의 문제, 정신병에 주목한 것은 흥미로운데, 이 작품에서 이토록 내면의 문제를 남다르게 포착할 수 있던 것은 인간 개인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는 사유가 바탕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외되었던 다양한 주체들이 작품에 등장하여 활약한 19세기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안에서, 정신 질환의 문제도,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공감하는 남성상도 등장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명행정의록』의 남성인물 위천유는 고통을 겪는 여성인물의 내면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곡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는 마뜩찮은 장인에 대한 불만을 아내에게 전가시켜 용서대립으로 인한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남성인물과 달리, 아내의 난처한 입장과 위축된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위로했으며, 어려서부터 불우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제수(弟嫂) 양현강의 깊은 아픔을 정확히 간파하고 치유했다. 남성인물들이 감정적 문제에 무심하거나, 자기감정에만 몰입한 나머지 여성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며 고통을 야기하는 주체가 되는 가운데, 여성인물의 빈민과 고통이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이해되고 공감되었던 한글장편의 흐름 속에서 위천유의 존재는 독특하다. 여성의 내면을 그토록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살피는 위천유의 공감능력은 고전소설사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매우 독보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

한, 특히 약자인 여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깊은 이해를 보여준 위천유의 등장으로 소설사는 더욱 풍부해지고, 여성 문제에 대한 남성의 연대 가능성도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료

- 『소현성록』 이대 소장본 15권 15책(정선희 외 역, 소명출판, 2010).
- 『보은기우록』 한중연 소장본 18권 18책(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이화여대 출판부, 1975).
- 『명행정의록』 한중연 소장본 70권 70책(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유효공선행록』 서울대 소장본 12권 12책(김기동편, 『필사본고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0).
- 『유씨삼대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 20책(한길연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 『현씨양옹쌍린기』 한중연본 10권 10책(국학자료보존회 영인본, 1979).
- 『명주기봉』 한중연본 24권 24책(문화재관리국 영인본, 1978).
- 『옥원재합기연』 서울대 소장본 21권 21책.
- 『옥수기』 (남윤원, 『필사본고전소설전집』 권11,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2).

2. 논저

- 박성희, 『공감학-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84.
-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 홍성민, 『감정과 도덕-성리학의 도덕 감정론』, 소명출판, 2017.
- APA, 권준수 외 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학지사, 2015.
- Jean Decety 편저, 현지원 · 김양태 공역, 『공감-기초에서 임상까지』, 학지사, 2018.
- S. 리몬 케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 -〈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6, 민족문학사학회, 2018, 91-121쪽.
- _____,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9.
- 문용식, 「〈명행정의록〉의 세대별 인물 기능과 갈등의 의미」, 『국제어문』 16, 국제어문학회, 1995, 197-224쪽.
- 박순임, 「〈명행정의록〉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145-174쪽.
- 서정민, 「조선조 한글대하소설의 위상 제고 방식 연구-〈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129-152쪽.
- _____,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279-300쪽.
- _____, 「〈명행정의록〉의 서술 태도 분화와 소설 서사의 위상 제고」,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173-196쪽.
- _____,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 _____,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21-145쪽.
- _____,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5-29쪽.

-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 5-28쪽.
- 양민정, 「〈창관호연록〉에 나타난 응-서, 구-부간 갈등과 사회적 의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2, 경인문화사, 1999, 445-490쪽.
-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1.
-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231-259쪽.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37-68쪽.
- _____,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452-487쪽.
- _____,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6쪽.
- 장시광, 「'호방' 관련 단어와 대하소설 호방형 남성주동인물의 개념」, 『은지논총』 35, 은지학회, 2013, 219-259쪽.
-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7-200쪽.
-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君子型)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147-178쪽.
- 채윤미, 「한글장편소설 속 선계(仙界) 형상화의 일고찰-〈천수석〉과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한국고소설학회, 2019, 41-75쪽.
- _____, 「〈명행정의록〉의 구현웅 형상의 특징과 의미」, 『동서인문학』 58, 계명대 인문과학연구, 2020, 29-58쪽.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응서대립담 연구」, 『고소설학회』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11-315쪽.

_____,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
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쪽.

한예민, 『〈명행정의록〉의 전고 활용양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논문, 2018.

<Abstract>

Empathy of male characters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 Focused on 'Wicheonyu' of *Myeonghaengjeonguirok* -

Ko, Eun-Im*

The Korean classical long novel is the genre which the problem to the upper layer woman is well revealed. At this time, problems are often sympathized and comforted by women in similar situations. However,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are male characters who understand and empathize with women's inner suffering better than anyone else. This paper aims to consider on the male character 'Wicheonyu' of *Myeonghaengjeonguirok* in which the sympathy ability is excellent. The male protagonist of the Korean classical long novel is classified into the confucian gentlemen type characters and the manly and broad minded characters. As to the confucian gentlemen type characters, the standard about the emotion control is high. So this character dislikes others' inappropriate desires and emotions and does not try to understand them. On the other hand, the manly and broad minded characters is active in expressing its own feeling and pursuing. In conflict situations, they are so immersed in themselves that they cannot empathize with their opponents. For this reason, it plays a role in giving pain to female characters who are in conflict. As such, both types of characters do not understand the

* University of Seoul.

other's emotional effects properly. However, 'Wicheonyu', the confucian gentlemen type characters of *Myeonghaengjeonguirok*, has excellent empathy, especially cognitive empathy, and understands and empathizes with the pain of female characters better than anyone else. Even in an unmarried marriage, he comforts his wife, Moonchang, who is troubled by a difficult situation, without sending his wife a complaint of father-in-law. And he heals Yanghyeongang by understanding the inside of Yanghyeongang, who suffers from paralysis and suffers from constant trauma. The point where women's sufferings are understood and empathized by men, not women, is remarkable, and the sympathetic ability of Wicheonyu is very unique.

Key Words : The Korean classical long novel,
Myeonghaengjeonguirok, Wicheonyu, The confucian
gentlemen type male characters, The manly and broad
minded male characters, Empathy

■ 논문접수 : 2020년 3월 15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3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